

사라의 죽음

사라가 죽었다.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한 아내, 누이 행세를 하다가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보내졌던 아내,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여자. 백이십칠 세,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육십이 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그네 생활을 하고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죽었다.

**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
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/ 창세기 23:2**

덥고 습기가 많은 곳이라 서둘러 매장을 해야했다.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구하기 위해 헤브론을 지배하던 헷 족속 대표들을 만난다. 땅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.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같이 ‘나그네요 거류하는 자’에 불과했다. 스스로 소개할 때는 겸손의 표시이지만 남에게 들으면 욕설에 가까운 말이다.

**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임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
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
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/ 창세기 23:6**

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.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이 어떠했는지 헷 사람들의 말에서 드러난다. 헷 사람들 보기에 아브라함은 ‘하나님이 세우신’ 사람이었다.

아브라함이 생각한 장지는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다.

**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
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/ 창세기 23:16**

값을 주고 사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에브론은 무덤으로 땅을 거저 주겠다 말하지만 본심은 아니었다. 에브론은 욕심이 많았다. 이 기회에 밭까지 통째로 팔기를 원했고 땅 값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은보다 더 가치가 높은 '상인들이 통용하는 은'으로 받기를 원했다. 사라의 장례가 급한 아브라함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. 아브라함은 싫은 내색 없이 값을 치루었고 이 모습을 성문 앞에 모인 증인들이 목격했다. 이곳이 훗날 아브라함, 이삭, 리브가, 야곱, 레아까지 묻히는 가족 묘지가 된다.

**마르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
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리라 / 창세기 23:17-18**

값을 주고 사는 이유

사라의 장례가 급했기 때문에 에브론의 욕심을 채워준 것이 아니었다. 막벨라는 헤브론에 있고, 헤브론은 가나안에 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었다. 헷 사람들이 준다고 냉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더니 과연 이렇게 이루어지구나…….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.

헷 사람들이 ‘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준 땅’이라는 말을 하게 할 수 없었다. 소돔 왕이 싸움에서 얻은 탈취물 전부를 가지라 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거절한 아브라함이었다. 자기 편한 대로, 눈 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붙이지 않았다. 당장 눈 앞의 이익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,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했다.